

주가 +16.06 1,360.03 (코스피지수)	환율 -0.40 943.70원 (원/달러)	금리 -0.01 4.61%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5.46 (+3.83)	
다우 (26일)	11,669.39 (+93.58)	
나스닥 (26일)	2,261.34 (+12.27)	
넷케이	15,947.87 (+390.42)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25엔 (+0.76)	
유로 달러 환율	1.2686달러 (-0.56)	
3년만기 회사채	4.95% (-0.01)	
클금리	4.48% (+0.01)	

“로봇·금형산업 진수 보세요”

광주 DJ센터서 박람회 개막

광주시 주력산업의 하나인 금형산업의 진수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박람회가 개막됐다.

광주시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날부터 4일 일정으로 국내 최초의 금형산업 국제박람회인 ‘2006 광주 국제 기계·금형·자동화산업전(GIMMA 2006 : Gwangju International Machinery·Mold·Automation Industry Fair 2006)’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15개국의 130여 업체가 참가했다. 공작기계와 물류기기, 금형 가공 및 성형, 금형 재료, 산업용 로봇, 제어계측기기, 공정제어시스템 등 금형과 관련된 대부분이 전시되고 있으며 부대행사로 수출과 구매 상담회, 금형포럼, 신제품·신기술 설명회 등이 열리고 있다.

박람회에는 세계 유수의 레이저 절단기기 업체인 한국트립프 MBH(가) 부스 30개를 임차하고 지역(회)화체인구가 신형 공작기계를 선보이는 등 350여개 부스가 판매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리쌀 우리가 지킵니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찬인)는 27일 광주시청 로비와 민원인 주차장에서 쌀가격 하락저지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캠페인과 쌀빵 등 쌀 가공식품 전시·시식 행사를 가졌다. 농협은 매달 1일을 ‘쌀빵 데이’로 지정, 전국적으로 쌀빵 취급매장을 150개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쌀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남상권 분석 7

제철소 배후 효과.. 중마동 ‘급부상’

광양 상권

중마동상권은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의 배후 주거지로 개발된 이후 광양권의 핵심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시청, 소방서,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주요 상가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사랑병원 주변 상권은 브랜드의류를 비롯 음식점, 병·의원, 유흥주점, 호텔 등 각종 주요 상가가 밀집한 ‘노른자위’ 상권으로 통한다.

반면 광양읍상권은 구 광양권의 대표적 상권으로 중마동 택지개발과 제2청사(옛 광양군청) 이전 등으로 인해 쇠퇴일로에 있다.

현재 숯불고기와 활어회집 등 일부 업종이 구 광양상권의 명맥을 잇고 있으며, 광양시가 추진중인 ‘도심활성화 사업’이 상권부활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랑병원 인근 고수의 보장

◇중마동상권=전체 상권 면적은 41만 6천여평으로 3만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택지개발 이후 기존 광양읍권은 물론 광양제철이 위치한 금호동과 인근 중소마을 등의 인구 흡수를 통해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4~5년새 백운로를 기준으로 시청이 위치한 상단상권과 사랑병원 인근의 하단상권간 분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사랑병원 주변 상권은 태영·금광·호반·상호1, 2, 3차 아파트 등 풍부한 거주인구와 광양제철 직원 유입 등을 바탕으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요 상가의 경

산단 근로자 유입 음식점·유흥업소 성업중 음내는 쇠퇴...‘광양숯불구이’로 명맥유지

우 평당 임대가가 600만~700만원(1층 기준)에 달하지만 빈 점포가 나오자마자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토지 매매가도 평당 1천500만원(1층 기준)을 호가할 만큼 짝잡할 수익이 보장되는 곳이다. 농협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과 9월 잇따라 문을 연 것도 상권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시청을 중심으로 한 상단상권은 지난 2000년 이후 주요 상가가 사랑병원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침체된 모습이다. 시청, 우체국 등 관공서 주변의 음식점들이 비교적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을 뿐 건물 신축이나 상가 입주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호공인중개사 신진호 대표는 “중마동은 사랑병원 주변 상가의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을 호가할 만큼 성장했다”며 “인근 중마터미널 배후상권 및 와우택지 개발 등도 향후 상권확대에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원도심 활성화’ 부활 기대

◇광양읍상권=구 광양권의 대표적 상권 및 주거지로 광양인구의 32%인 4만3천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상가가 중마동으로 옮겨간 데다 인근 순천으로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

현재 ‘숯불고기 거리’와 읍사무소 주변, 북부정류소 사거리 등의 일부 상가만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숯불고기 거리’는 기존 읍사무소 인근의 전통 가게들이 서천변으로 옮겨가면서 형성됐으며, ‘숯불고기 축제’ 및 식당 대형화 등을 통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읍사무소 주변은 1990년대 후반 핵심상권의 평당 매매가가 1천300만원을 호가했지만 현재는 350만~400만원으로 급락했다. 상가 임대가가 평당 200만원(1층 기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공실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상권내 주차장과 녹지시설 등이 부족한 것도 상권 침체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읍사무소 인근의 경우 옛 경찰서 부지를 제외하면 주차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광양을 원도심활성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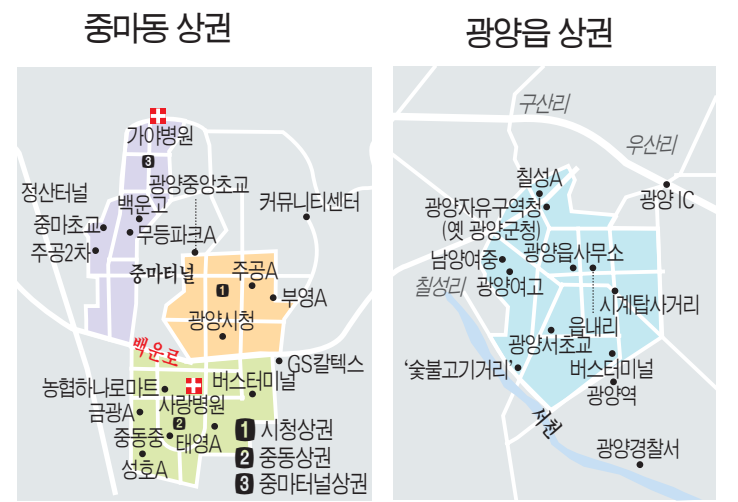
허무흔 공인중개사는 “원도심활성화는 가로망 구축을 통한 ‘도심특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광양을 상권부활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며 “최근 삼호가 광양읍 칠성3지구에 ‘e-편한세상’아파트를 성공리에 분양한 것도 광양을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다음은 광주·전남상권 결산입니다.

광양상권은 크게 광양시청이 위치한 중마동상권과 옛 광양군청 인근의 광양읍상권으로 나뉜다. 지난 1986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준공을 시작으로 인구 및 상권이 빠른 속도로 재편됐다. 인구는 13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56%인 7만8천여명이 중마동과 광양읍에 거주하고 있다.



■ 중마동상권 세부도



수퍼 등 소매유통

“4분기가 두렵다”

채감경기 1분기 이후 최저

된다는 업체는 29.7%, 불변은 28.7%로 조사됐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임금인상률과 고용이 감소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또 최종 9월에 달하는 추석연휴로 인해 추석특수 효과와 미미할 것으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167)은 지난 분기에 비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 반면 수퍼마켓(80)과 편의점(86), 할인점(90) 등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4분기 경기전망 실적치는 ‘90’으로 전분기 실적치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세관, 추석절 수출입 물품 신속통관 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대영)은 25일부터 10월8일까지 2주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특별지원에 나섰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 추석연휴기간 동안 세관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별지원대책으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해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는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보세구역도착전신고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 신속한 통관에 앞장서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이 용

9월 28, 29일

김범룡

10월 11, 12일

부킹전국
100%

상호 상인네트워크반응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